

# 주목 받는 다큐·올해의 영화 등 개봉

광주극장이 상반기 가장 주목 받는 다큐멘터리 3편과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의 영화'를 포함한 신작을 대거 개봉한다.

7일에는 '세라비, 이것이 인생', '청년 마르크스', '밤셀'이 동시에 관객들을 찾아온다.

코미디 영화 '세라비, 이것이 인생'은 베테랑 웨딩플래너 '맥스'가 실수 연발인 직원들과 까다로운 의뢰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지상 최대의 흥 넘치는 결혼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시종 일관 폭소를 유발하는 다채로운 에피소드와 개성 강한 캐릭터는 물론, 아름다운 영상미와 음악도 영화의 재미를 더한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17세기 고성과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관객들에게 은근한 긴장감과 코믹함을 배가시켜 프랑스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 석권과 함께 8주간 TOP10을 차지했다.

'청년 마르크스'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이 카를 마르크스의 사랑과 우정을 그렸다. 르네상스 이후 정치적 변화를 이끈 오만하지만 열정적이고,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마르크스의 젊은 날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 개봉일 오후 7시 20분에는 전남대 철학과 위상복 교수가 '칼 맑스, 그 우리

## 광주극장, 14일 김형중 문학평론가 시네 토크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스틸.

의 이념적 역사성'이라는 주제로 관객들과 토크를 나눌 예정이다.

1940년대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이자 과학자인 헤디 라머의 음성을 따라 그의 인생과 과학적 업적을 집중 조명하는 다

큐멘터리 '밤셀'도 같은 날 개봉한다. 끊임없이 스캔들과 오늘날 군사기술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등으로 차용되고 있는 '주파수 도약' 기술을 만들어 낸 헤디 라머의 다큐멘터리는 제20회 서울 국제여성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가장 기대되는 여성 영화로 기대를 받고 있다.

14일에는 아트멘터리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 스크린에 등장한다. 55살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남다른 호흡을 보여주는 아녜스 바르다와 JR 포토트릭을 타고 프랑스 곳곳을 누비며 마주한 시민들의 얼굴과 삶의 타전을 카메라에 담는다. 두 사람은 특정 장소만이 갖고 있는 자연에 얼굴벽화를 더해 삶의 공간은 갤러리로, 일상은 경이로운 예술로 탄생시킨다.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경쟁초청 및 골든아이 수상에 이어,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아티스트로서의 정점에서 활동하던 류이치 사카모토가 인후암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2012년부터 새로운 앨범 'async'를 발매한 2017년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류이치 사카모토: 코드'도 14일부터 상연된다. 비동시성, 소수, 혼돈, 양자물리학, 인생무상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주된 이 앨범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가장 사적인 앨범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6월의 시네마 가이드 맵 시간에는 김형중 문학평론가가 추천한 프랑수와 오종감독의 '두 개의 사랑'이 상연된다. 쌍둥이 형제를 오가며 사랑을 나누는 여자 클로에를 통해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고급스럽게 풀어낸 섹슈얼 스타일로 오는 14일 오후 7시 만나볼 수 있다. /이보람 기자

임문자·김형미·이개호·강환식·전석홍·조옥순

## 현대문에 문학상 선정

오늘 광주향교서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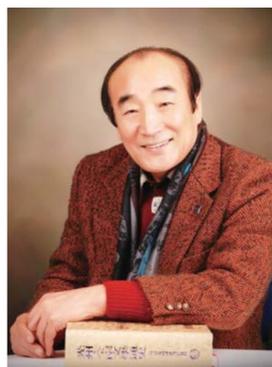
2018현대문에 문학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가 5일 오전 11시 광주향교 내 유림회관에서 열린다.

(사)한국지역문화인협회(이사장 황하택)와 현대문에는 2018현대문에 문학상 수상자로 임문자(시), 김형미(시·수필), 이개호(수필), 강환식(시·희곡·수필), 전석홍(시), 조옥순(시·수필) 씨 등 6명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 및 정기총회는 김재길 시인과 이성금 수필가의 진행으로 3부에 걸쳐 진행된다.

가수 신승호씨의 축하와 민요, 시 낭송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부에서는 개회식과 문학상 시상이 진행되고, 2부는 신학기 처장의 진행으로 정기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예산·결산 보고와 회칙 협의, 임원 선출 등에 이어 3부 오찬이 마련된다.

황하택 이사장은 "지난 1999년 문학을 일구기 위해 탄생한 현대문예가 올 가을이면 100호를 맞게 된다"며 "그동안 등단작가만도 534명에 이르러 한국 근대문학사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대한민국 문학메카



황하택 이사장

의 중심에서 그 혼을 다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황 이사장은 덧붙여 "현대문에 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진직 모든 회원들에게 안겨주어야 했으나 늦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추대위원들의 추대를 받아 한국문단을 밝게하는 문학인들에게 그 빛을 영구히 발휘하도록 문학상을 시상하며 앞으로 계속 이어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아시아문화광장 그늘쉼터.



나비분수(재공=ACC기자단 류길재)

## 그늘쉼터·안개분수... 문화전당서 휴식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뜨거운 여름, 도심 속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늘 쉼터와 안개분수를 운영 중이다.

ACC는 아시아 전통 건축양식과 염색 기법을 이용한 특별한 그늘쉼터를 ACC 아시아문화광장에 설치했다. 그늘쉼터는 아시아 유목민들의 거주지와 같은 모양의 텐트형 8개와 파라솔형 9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도 전통염색법인 핸드블록 프린트를 응용해 제작·설치해 띄어별을 피하는 그늘쉼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늘마당에 이어 새로운 포토존으로도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아시아문화광장과 나눔광장에서는 안개분수를 가동 중이다. 안개분수는 어린이와 가족, 연인들에게 새로운 여름 물놀이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ACC 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 사이 광장에서 나비정원을 모티브로 한 음악분수를 운영해 밤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낮에는 청량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ACC의 핫플레이스인 하늘마당은 6월까지 잠시 잔디를 고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이연수 기자

## 아시아문화테마위 운영사업 단체 공모

ACC, 11일까지 e나라도움서 공모 마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11일까지 'ACC 아시아문화테마위원회 운영사업'에 참여할 역량있는 기관(단체)을 공모한다.

아시아문화테마위원은 국제사회 내 아시아 문화의 미래 전망을 이끌고, ACC가 진행하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활용할 주제를 도출하는 싱크탱크로 ACC의 미래전략 프로젝트다.

이번 운영 사업은 국제위원회(가칭 아시아문화테마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국제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해 연차별로 올해의 테마를 생산·발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모대상은 ACC의 공신력과 위상에 걸맞은 국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관(단체)으로, 풍부한 관련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세계적 문화 동향에 밝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콘텐츠 테마를 발굴해본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단체여야 한다. 국제적 네트워크 관리와 참여 경력 등도 주요 선발 기준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오는 1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062-601-4033.

/이연수 기자

오리지널 두유 - 베지밀

베지밀 전유분 함량 12.5% 나연신부부

#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은콩, 고칼슘 비타D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엔
- 필수 단백질 효능 강화메티오닌
- 항산화 영양성분 이연자, 셀레늄(Se)
- 두뇌 구성물질 오메가3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정, 올리고당

국산 전유분 함유

Vegemil 베지밀

항아리고 건강인 5060 시니어두유

Synmilk for Senior Citizens

두유액 91% (두유분량 7% 이상) 180ml (120kcal)

1 주문 채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쇼핑 트러스트 www.edaymall.com | 문의 | 고객센터 080-8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부영업소 (02)552-9107, 북부영업소 (02)989-3182, 남부영업소 (02)981-5538, 강남영업소 (02)983-9591, 서부영업소 (02)594-2215, 안양영업소 (02)206-0188, ● 강원영업소 (02)304-8901

● 충청영업소 (042)629-8801, ● 전북영업소 (063)214-5731, ● 전남영업소 (062)241-5071, ● 경북영업소 (033)353-3441, ● 경남영업소 (055)221-8581, ● 광주영업소 (054)711-8321, ● 부산영업소 (051)004-8881